

**2022년 1월 30일 “성경의 큰 숲 보기(59) 베드로후서: 주님을 앞으로 생명을 이르기!”  
(벧후 1:3-4)**

이 서신은 사도 베드로가 유언과 같이 남긴 서신으로서(1:14-15) 사도는 성도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며 동시에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서신의 구성 및 흐름**

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서신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1:2, 3, 8; 2:20, 3:18).  
- 신앙의 골격: 1:3-15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그분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었다.

<세계의 거짓 가르침>

- (1) 1:16-20: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은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
- (2) 2 장: 최후 심판은 없다
- (3) 3 장: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2] 왜곡과 거짓 주장들**

(1) 1:16 예수님의 권능(왕 되심)과 재림은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는 변화산에서(막 9 장) 예수님의 위엄을 목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다' 이것은 구약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2) 2 장 최후의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가 드는 세 가지 전례: (i) 반역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신 것(에녹 1 서); (ii) 홍수 심판; (iii)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런 심판을 피할 길은 의로운 영혼을 갖는 것입니다(2:7-9).

최후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절제, 성적 부패, 탐욕 추구가 특징입니다. 이런 행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3) 3 장. 예수님 재림이 약속되었다면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 이에 사도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래 걸린다면, 하나님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물질(원소)/하늘이 풀어진다'는 표현은(3:10,12), '모든 일이 드러난다'(3:10 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3:13)는 표현과 연동되어 나옵니다. 이로 보아 마지막 날에 세계는 한 꺼풀 벗겨지고, 밝히 드러날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것을 고대하게 합니다. 이 때, 파멸의 대상은 판을 치던 악입니다. 본문에서 불은 정화를 의미하며, 모든 것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1 장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 성도의 특권과 책임**

성도가 구원받고 얻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는 함께 공유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길은 하나님/예수님을 앞으로써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덕(선함) → 지식 → 절제 → 인내 → 경건 → 우애 →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1:5-7). 이러 성품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적 성장의 과정 속에서 얻는 축복입니다.

모든 성품을 아우르고 완성하는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궁극적으로 타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합니다. 사랑은 자기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인을 향해 확장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그토록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부으실 축복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속에 머무르게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결과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확고하여 아버지의 성품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삼으시는 특권과 축복에 관해 감동하며 동시에 선한 책임감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이란 소명의 길을 걷는 인간이 갖는 고귀한 내적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생각해봅시다>

1. 이 서신에서 사도는 삶에서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으로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2.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감동과 책임을 느끼며 이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3. 심판에 대한 의미도 3 장을 통해 다시 정리해 봅시다.